

③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그들이 혼령이나 영적인 존재가 되어 현세의 자신들을 지켜 주길 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조상은 결코 생명의 창조자나 주관자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위탁받은 관리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제사로 고민하시는 성도들이시여! 죽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흠으로 돌아간 조상이나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소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영장(靈長)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숭배하는 행위(Naturalism)나, 자연에 속한 어떤 동물을 섬기는 행위(Totemism)나, 범신론적 사상으로 피조물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정령숭배 행위(Animism)는 모두 다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참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추석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보냅시다.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시116:14-18)

성경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10:32-33)

이번 추석에 나의 구주의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전도합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번 추석에 그러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우 담임목사

6.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추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1Chronicles 16:34

예 배 지 침

1. 예배 시간이나 장소는 온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고 편리한 곳으로 정하면 됩니다.
2.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고 인도자는 앉거나 서서 인도합니다.
3. 본 지에 수록된 예식순서지를 여러장 준비하여 참석자들과 나누면 더 좋습니다.
4. 이 순서에 따라 가족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나 성경 봉독을 가족이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5. 예배 시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6.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나누면 좋은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예 배 순 서

지금부터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
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찬송가 589장(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부르겠습니다.

- 1절:**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절: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절: 먼동들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합시다 아멘

3. 가족을 대표하여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을 통해 흠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
안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부지간에도 말씀과 같이 서로를 주님 섬기듯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
서.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순종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함께 입을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14절 입니다.

-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5.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추석!>

추석을 맞아 헤림의 모든 성도와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담임목사가 사랑으로 문안합니
다. 복된 추석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명절 가
운데 추석은 것처럼 날마다 계속되어도 좋을만큼 마음 넉넉한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
석에 이 모든 것이 있도록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번 추석, 헤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함께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① 먼저, 부모님과 조상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오늘의 기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비록 신앙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사랑해주신 조상을 기억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에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나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며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인 불
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했으며,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
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
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고 했습니다.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부모공경보다 더 우선된, 그 어떠한
예절과 예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
늘 우리가 있는 것이기에 추석과 같은 명절에 모여,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가족들이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며 고인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먼저 이 추석에 부
모님께 감사합니다. 조상께 감사합니다.

② 둘째로 조상과 가을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24:1)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이다”(롬11:36)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116:12-14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
리이다”**

이것이 추석의 핵심정신입니다. 해와 달과 비가 있었기에 곡식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와 조상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인데 그 부모와 조상
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명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
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이 모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